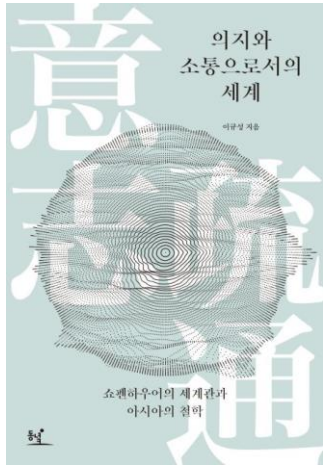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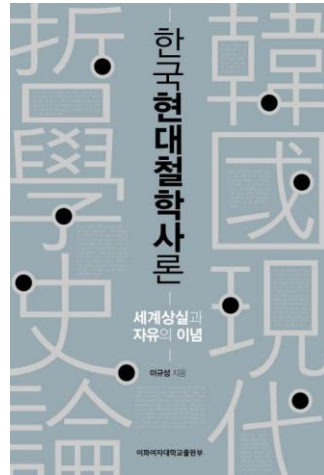
童心說 그리고 市隱의 주체자  
이규성의 현대철학 추측

발제자: 최종덕  
2023년 2월 16일  
이규성사상연구회



이규성

『의지와 소통으로서의 세계,  
쇼펜하우어의 세계관과  
아시아의 철학』  
2016년, (1,100쪽)



이규성

『한국현대철학사론,  
세계상실과 자유의 이념』  
2012년, (975쪽)

## 참고한 책

『내재의 철학: 황종희』 1994

『생성의 철학: 왕선산』 2002

『중국현대철학사론: 획득과 상실의 역사』 2020, (1,136쪽)

『마음과 철학, 황종희 편』 2013

## 간접 참고

이지 (김혜경 번역), [분서 I, II](#). 한길사 2004년

# philonatu.com 자료

쇼펜하우어로 본 이규성의 소통과 혼용의 철학 1부

[https://philonatu.com/review/review\\_view.php?id=614](https://philonatu.com/review/review_view.php?id=614)

쇼펜하우어로 본 이규성의 소통과 혼용의 철학 2부

[https://philonatu.com/review/review\\_view.php?id=615](https://philonatu.com/review/review_view.php?id=615)

이규성 씬 의지와 소통으로서의 세계 - 중천학당 이달의 책

<https://youtu.be/d0ot8w3UQSA> (유튜브)

이규성의 한국현대철학과 자유의 씨앗

[https://philonatu.com/review/review\\_view.php?id=89](https://philonatu.com/review/review_view.php?id=89)

# 쇼펜하우어에서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 칸트의 현상과 물자체 구획 대신에 표상과 의지로 대체한다. 정확히 말해서 칸트의 현상은 표상이며, 물자체는 의지를 통해 체험할 수 있다.
- 인간의 이성은 욕망을 통제하지 못한다.
- 신체활동이 의지의 표현(표상)이듯이 세계의 운동도 큰 의지(우주적 의지)의 표현(표상)이다. 의지는 생명의 원리를 말한다.
- 의지는 이성보다 원형욕망구조에 가깝다. 의지는 목적을 갖지 않는다. 방향없는 힘이다.
- 인생은 고통이지만 음악(숭고함)을 통해 고통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
- 고통은 개인이 세계의 큰 의지에 따르지 않고 개인의 원리(욕망)에 매몰되기 때문에 생긴다.
- 그래서 고통을 없애려면 자아에 집착을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욕망을 버리는 열반을 모색한다.

# 이규성의 의지론, 生意로 충만한 주체 그리고 전습록 한 구절

인간은 우주의 마음이며

천지만물은 본래 나와 한 몸이다.

夫人者 天地之心 天地萬物 本吾一體者也 (전습록 중 179조)

이런 우주의 마음은 생동하는 의지, 生意로 충만한 주체 (마음, 230쪽)

## 세계는 나의 표상이면서 동시에 우주적 의지의 체현이다.

- 의지는 목적을 갖고 세계를 앞에서 끌어가지 von vorne 앞지만 뒤에서 von hinten 미는 힘으로 비유될 수 있다.
- 타자도 나에게서는 하나의 표상일 뿐이다. 이런 생각은 아주 위험하다. 상상의 가상적인 표상에 지나지 않을 타자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자를 게임의 적군처럼 본다는 점에서 위험하다는 뜻이다. 이 위험을 벗어나려면 타자를 표상이 아니라 본질로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본질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의지이다. 의지는 타자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 공감하며 상호동등함을 실천하는 힘이다.

# 주체자로서 이규성

“인간은 천지만물의 마음이다.

마음은 천지만물의 주체다.

마음은 곧 “천 ” 이므로

마음을 말하면

천지만물을 모두 열거하는 것이다.”

# 왕수인 '치양지'(致良知)

1. 저절로 주어진 밝은 자각의 앎(自然明覺之知)
2. 순수하고 한결같으며 거짓됨이 없는 앎(純一無僞之知)
3. 두루 행하여 중단됨이 없는 앎(流行不息之知)
4. 널리 대응하고 막힘이 없는 앎(泛應不滯之知)
5. 성인과 어리석은 자 사이에 틈이 없는 앎(聖愚無間之知)
6. 하늘과 사람이 하나로 합치되는 앎(天人合一之知)

박은식 1910, 『왕양명실기(王陽明實記)』  
(이종란 번역. 한길사 2010. 48-49쪽)



# 본질에서 본체로 - 이규성이 좋아하는 문구

- 본체와 작용을 구분하지 않는다. (맹자사설 중에서)
- 현상과 본체는 본질을 공유한다.
- 본체는 목적론적 의도를 갖지 않는다. (마음, 237-240쪽)

자유는 충족이유율 세계와 정반대에 위치한다. 의지는 충족이유율이 지배하는 결정된 세계가 아닌 자유의 차원에 있다. 의지는 인과범주를 넘어서 있으며 마찬가지로 자유도 그렇다 (80). 의지는 필연성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잉여의 힘으로서 자유다. 자유는 쇼펜하우어에서 가장 소중한 희망이기도 했다.

이규성의 자유는 한발 더 나아간다. 그는 깨달음을 통한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본다는 점이다. 깨달음의 자유는 관념이나 사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경험세계에 의존해서 가능하다 고 하는데, 단지 이규성이 말하는 자유는 경험세계에 안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규성이 인지하고 실천하려 했던 자유의 모습이다.

selbstaufhebung 스스로 지양하는 힘

표상	의지
<p>충족이유율- 인과범주의 세계</p> <p>Schlae der Natur</p> <p>과학적 지식-</p> <p>유물론의 객관주의는 인식능력의 이율배반</p>	<p>자유의 세계, 예지계</p> <p>Natur –현상 너머의 자연, 대리석의 속</p> <p>선험적 관념론-초월적 깨달음</p> <p>삶의 도덕, 근원적 의지로서 물자체</p>
	<p>인간의 지성도 자연의 산물</p>

## 형이상학의 길

- 내부에서 외부로
- 세계가 의식 안에서 자신을 제시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지식에 대한 인식론적 반성이다.
- 내면을 보는 시야이며 반성적 통찰이다.
- 지혜론이고 일종의 윤리학이어야 한다

## 자연과학의 길

- 외부에서 출발한다.
- 자신의 고유한 의식이 아니라 외적 경험에 주어진 것이다.
- 동물해부학자나 생리학자의 태도처럼 과학적 탐구에 해당한다.
- 표상론



형이상학과 자연과학은 서로 모순이지만 보완적 상관관계이다.(224)



모순이면서도 소통이 가능한 이유

“방법상에서 유물론으로 귀결될 수 있는 자연과학도 형이상학을 필요로 하듯 형이상학은 적절한 세계해석을 위해 자연과학을 필요로 한다”.(쇼,216)는 이규성의 해석 부분을 위 표의 결론으로 봐도 될 듯하다. 비판적 유물론과 전통 형이상학은 이율배반이지만 쇼펜하우어는 선험주의를 응용하여 이 둘의 이율배반을 적대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병립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이 쇼펜하우어의 특징임을 이규성은 간파했다. (쇼,446)

## 뉴턴의 색채론

- 입자 중심
- 수학으로 환원된 색깔
- 경험이 아닌 가상
- 추상화된 색채로서 기계론적 물리주의 소산물이며 과학주의에 의거



뉴턴 색채론을 부정한다: 쇼펜하우어는 생리학을 무시한 채 빛 자체의 구성적 속성을 기반으로 한 뉴턴의 입자설을 부정한다.



### 괴테와 쇼펜하우어 색채론 차이

괴테 색채론의 기초는 자연생성 원리인 양극성polaritat(대립되는 색의 혼합), 상승Steigerung(색의 상승변화), 총체성Totalitat(반대색을 느낀다)의 3 원리를 그대로 따른다는 데 있다.(366) 쇼펜하우어는 괴테의 색채론의 영향받은 계승자로 볼 수 있지만, 후일 쇼펜하우어와 괴테 사이 차이가 나고 서로 양립불가능 이론으로 바뀌게 된다.(370) 즉 쇼펜하우어에서 색채는 눈에서 일어나는 생리학적 현상이라고 말하면서 괴테와 차이가 생긴다.(271) 또한 쇼펜하우어는 색채의 수량적 비율을 인정했기 때문에 괴테로부터 배척받게 된다.(373)

## 괴테의 색채론

- 파동 중심
- 경험된 실재
- 생명주의에 입각한 색채
- 자연의 현상학으로 양극성원리, 상승원리, 총체성원리에 의해 색깔이 생성된다.



괴테 색채론에 영향받는다.(초기) 한편 쇼펜하우어는 호이헌스(1629-1695)나 프레넬(1788-1827)의 파동설도 부정한다.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반시대적unzeitgemäß 스승으로 간주했다

# 이규성이 그리는 자유

1. 자유는 의지의 산물이다.
2. 자유는 표상계에서 의지계로 추월하고 초월하는 원동력으로 보는 것이 이규성의 깊은 생각이다.
3. 자연에 대한 사랑에서 자유의 이상을 찾는 스피노자 윤리학도 마찬가지로 표상된 윤리에서 의지의 도덕으로 건너가는 길임을 이규성은 간파한다.
4. 자유는 충족이유율 세계와 정반대에 위치한다. 의지는 충족이유율이 지배하는 결정된 세계가 아닌 자유의 차원에 있다. 의지는 인과범주를 넘어서 있으며 마찬가지로 자유도 그렇다(쇼,80).
5. 의지는 필연성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잉여의 힘으로서 자유다.
6. 자유는 실체의 속성이나 상태가 아니라, 관계적 활동의 원리이다. 언어보다 예지계의 차원에서 접근
7. 자유는 자아실체가 점으로 수축하여 우주에 발산하여 관계를 만들어가는 힘이다.(쇼, 1091)
8. 우주에 발산된 자유를 향한 태도만이 비로소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규성 철학의 핵심**이다.



## 이규성의 의지형이상학과 아시아 생명철학

이규성의 의지 형이상학은 생명론으로 이어지며서 완성된다.



생의 의미를 찾는 쇼펜하우어 윤리학에는 근심Sorge(번뇌)과 무상  
Zeitlichkeit이라는 삶의 원형에 머물게 되는 우려도 있다.(쇼,413)



이규성은 이를 풀기 위하여 아시아 철학의 주요 특징인  
생명철학에 기반한 수양론을 도입한다.

## 이규성의 수양론 출발점

- 예지계에 닿기 위하여 설명한 것이 이규성의 단예端倪 개념이다.
- 우리의 심층내면이 표면적 감정선에 맞닿는 데가 바로 단예端倪라고 한다.
- 거꾸로 말해서 단예를 실마리 삼아 심층본성이 드러난다는 뜻이다.
- 심층본성은 우주의 궁극적 본성과 같아서 우주의 본질을 자각하는 일은 곧 단예를 다스리는 일에서 시작되며 이것이 바로 이규성이 말하는 수양론이다.

## 이규성이 말하는 신비주의 (475-500)

- i) 물질과학으로 포섭되지 않는 자연의 운동원리를 표현한다.
- ii) 염세주의와 다르며 신학적 신비주의와 달라서 신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736) 자연과 우주를 연결하는 힘을 표현한다.
- iii) 논리를 실재로 둔갑시키는 신학존재론이나 과학주의와 다르게 세계의 실재를 실재 그 자체로 해석한다.
- iv)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표현한다.
- v) 정지된 불변으로서 형이상의 실체 대신에 動靜의 변화를 담고 있는 실재를 파악하는 인식의 소통경로이다.
- vi) 서양 실체론이 아니라 동적인 존재론의 소산물이다. 그래서 無를 인정한다.

인과는 자연의 진정한 법칙이 아니라 법칙의 형식일 뿐이다

# 최한기 추측록(1836)에서 말하는 추측이란

- 인간이 하늘에서 받아 이루어가는 것이 성(性)이며, 이러한 성에 따라 익히는 것이 추(推)가 되고, 이 추로써 의당하게 헤아리는 것을 측(測)이라 한다. 추측(推測)하는 문(門)은 예전부터 모든 사람이 함께 가는 대도(大道)이다.(서문)
- 추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를 미루어서 이(理)를 헤아리고, 정(情)을 미루어서 성(性)을 헤아리며, 동(動)을 미루어서 정(靜)을 헤아리며, 자기를 미루어서 남을 헤아리고, 사물을 미루어서 사(事)를 헤아려야 한다

이기주의	숭고주의
<p>i)동물적 자기본존욕과 ii)사리사욕          동물은 이기적이지만 사리사욕          Eigennutz이 거의 없다</p>	<p>사리사욕이 아닌 상태를 인정하여 도          덕의 선험적 지위를 수용</p>
<p>개인의 자기생존을 위한 개체중심의          태도</p>	<p>개체가 아닌 우주와 일체되어 사물을          바라보는 세계중심의 태도</p>

## 쇼펜하우어를 읽는 이규성의 강조점

1. 의지 선험론의 이데아는 형이상학이나 신학 혹은 과학에 앞서 초월적 깨달음의 지혜를 주는 사다리이다.
2. 쇼펜하우어에서 세계보다 삶의 도덕이 중요하다.
3. 서양 중심 철학사를 자각적으로 비판하며 동양사상과의 혼용이 필요하다.
4. 우주적 연대성을 기반으로 생태주의 생명진화론을 전개한다

## 쇼펜하우어의 비역사성에 대한 이규성의 비판

독일의 사회철학자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 1895-1973)는 자신의 저서 <쇼펜하우어와 사회>(1955)에서 역사의 진보라는 이름으로나 혹은 민족이나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의 사회악을 신성시하거나 영광화 glorification하는 위험을 경고한 쇼펜하우어의 탈권력적 세계상을 적극 옹호했다.(880-2) 쇼펜하우어의 탈권력적 성향은 이런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 사회권력의 부정성에 대하여도 눈을 감아버리는 부정적 의미를 같이 갖고 있다. 이규성은 쇼펜하우어의 철학 일반을 높이 사면서도 쇼펜하우어의 비사회성, 비역사성에 대하여 강한 비판을 한다.

**이규성은 버틀랜드 러셀의 아시안적 대안을 쇼펜하우어 철학의 비역사성에 대한 대안1로**



## 대안2로서 이규성의 생명존재론 - 무간격, 접속, 소통

‘간격 없다’는 이규성의 메타포 <무간격>의 세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접속되어 있다는 것으로  
우주를 채우는 허공 혹은 진공마저도  
생명으로 가득 차있다는  
그만의 독특한 시적 표현이다.

간격 없는 우주: 무중심의 중심, 주변이 모두 중심인 주변  
박지원과 홍대용의 무한우주론

박지원과 홍대용 등의 조선 실학에 영향을 준 명나라 후기 서광계(1562-1633)

그리고 서광계가 마테오 리치에게 소개한 이탁오(1527-1602)

### 대안3으로서 이탁오

- 이탁오는 양명학의 기운을 갖고 있는 철학자로서 良知를 본성에서 기인한 창발적 生機로 구조화시켰다. 이탁오의 유명한 童心論에서 말하는 동심은 절거순진한 마음으로 거짓 없는 진실성이라고 이규성은 풀이한다. 동심은 赤子之心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가진 마음인데, 언어가 아닌 원초의 본래심으로 길가 지나가는 누구나 갖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한다. 이규성은 이런 동심의 양지가 사람마다의 마음에 이미 구비되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우주에 편재하는 생명의 마음이라고 표현한다.(1050) 이 표현은 단순한 어구 표현에 그치지 않고 인간이라는 동일성은 우주라는 동일성에 포섭되거나 아니면 동등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이다.

# 童心論의 원형 왕수인

“어린아이는 아직 동류자이니

새나 짐승이 슬피 울거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반드시 측은히 여기는 불인지심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그仁이 새나 짐승과 일체가 된 것이다.”

( 왕수인 大學問 중에서)

## 이지(卓棼, 1527-1602)의 양명학

- 동심설(어린아이의 마음)-거짓을 버리고 생각의 원형으로 돌아가기 -동심이 양지이다. 정신능력에서도 남녀의 차별이 없다.-焚書 -童心說
- (웃입고) 밥먹는 것이 곧 인륜물리이다. 焚書
- “인륜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양여원은 그 중 네 가지를 버리고, 다만 몸을 사우성현(師友聖賢) 사이에만 두었다.”라고 하면서 의(義)·친(親)·별(別)·서(序) 등은 상하 관계의 종적인 윤리이므로 버리고, 스승과 벗 사이의 신(信)은 횡적인 윤리이므로 취한 것이라 하였다. - 焚書 「하심은론(何心隱論)」 삼강오륜
- 공동체 구성원 관계를 오로지 평등한 신의 관계로 본다. -하심은론

# 동심

분서1, 348-352에서 따옴

- 진실한 마음, 거짓을 끊어버린 순진의 본심, 聞見이전 처음의 모습, 美名 이름을 날리고 싶은 마음 이전, 공부란 많이 책을 읽어어도 동시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마음,
- 이규성의 글쓰기 : 동심이 있어야 가능하며, 찬양과 미환된 문장은 거짓이고 동심을 잃은 글쓰기이다.

# 마음과 현실을 연결하는 실천성 - **대안4** (이규성, <한국현대철학사론>, 2012)

## 세기말초 항일운동과 독립사상의 사상적 뿌리

동학	대종교	양명학계통	결합사상
최제우/최시형/ 이돈화/김기전/ 김구(동학+ 양 명학계열)	나철/전병훈/이 기/서일	신채호/이기영/ 이건창/박은식/ 이회영/김원봉	함석헌/시남철/ 박치우/한용운
계급타파/만민 평등/주체자각	인권/우주평등, 자존성/저항/ 경제자립	주체적 자유/현존적 삶/지행합일/ 경제자립	인권/실천적 사회 의식, 진보역사
항일/ 반계급운동	무장항일/양명 학계열과 연계	문화적 독립운동/ 아나키즘+ 세계주의 /신흥무관학교설립	실천적아나키즘/ 이념운동/범신론

- 이규성은 자기 자신을 말하듯 쇼펜하우어의 유고(1804-1811, Initial Sheets 1-8)에서 의지의 자기부정성을 따르는 철학의 길을 아래처럼 묘사했다. “날카로운 돌들과 가시덤불로 덮힌 가파른 길을 통해서만이 도달되는 높은 산길”에 비유된다. “외지고 황폐하기조차 하지만 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 그는 이따금 절벽에 이르러 아래를 현기증과 함께 내려다보지만, 바위에 힘껏 의존하고서 보면 메마른 황무지들은 사라지고, 늪과 울퉁불퉁한 곳들은 평평하며 거슬리는 소음들은 들리지 않는다”.(1096)

# 배타적인 것들을 하나로 담아내는 혼용의 철학, 이규성

- 신학과 철학, 과학과 예술, 물리와 생물, 언어와 반언어, 이기주의와 숭고감, 그리고 색채론 논쟁에서 보았듯이 입자와 파동을 하나로 담아낼 수 있는 혼용의 철학이 그의 사상적 지지대이다.
- 합쳐져 있는듯 보이지만 여전히 이질적이 것들의 혼합은 개별성의 진리를 숨기는데 급급한데, 이규성은 그런 융화되지 못한 혼합의 거짓을 **흘겨 보니\*** 그 은폐를 드러내고자 한다.
-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소통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혼용의 작업을 했다.



# 이규성의 흘겨봄

독립운동가 신규식이 일제에 항거하며 독약을 마시고 한쪽 눈을 잃었는데, 그 이후 그는 자신의 호를 한쪽 눈으로 흘겨본다는 뜻으로 예관 睨觀이라고 붙였다. (『처음 읽는 한국 현대철학』 344쪽)